## 맑시즘과 신좌파 - 아이작 도이처(1967) 번역 - 3(끝)

엔리코단돌로

## <!--StartFragment-->

저 30년대의 초보적인 맑시스트들은 맑시즘의 ABC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탈린이 등장했고 ABC를 상형문자로 바꿔버렸죠. 그러나 맑시즘은, 무시하라는 잘못된 조언을 받겠지만, 여전히 대단한 지식의 보고입니다.

최근 2~300년간의 역사 중 칼 마르크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아니었습니까? 누구의 저작이 그의 저작보다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기를 무디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방해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일하는 모든 대중매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지 않기도 한)는

여러분의 머리에 맑시즘은 낡았다는 말을 꽂아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99퍼센트의 신좌파는 거만한 태도를 취한 채 그대로 따라서 말할 것입니다.

'맑시즘은 낡았다.' 그리고 저는, 유명한 영어 경구를 빌려 바꿔서 말하자면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토록 조금도 모르는 것에 대해 그토록 많은 이들이 말한 적이 없었다."

맑스에게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그를 거부하기 전에 여러분은 그를 읽어보아야 하고, 지식을 취해야 하고,

그 다음 독립적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실용주의적이 되어서 맑스를 미국이나 유럽, 러시아에 '적용'해볼 생각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데이비스: 신좌파는 맑시즘이 타락했다고 느끼며, 이런 반감은 러시아에서의 경험에 의한 것만은 아닙니다.

도이처 : 맑시스트적 방법론은 지금까지 '적용'되어온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맑시즘에 대한 반감을 분석하는데 정확하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탈린주의는 러시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국가의 노동운동에 불운한 영향을 주었고

다른 곳에서 그런 것처럼 맑시즘의 성장의 출발을 왜곡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초기의 미국인 맑시스트들은

러시아, 폴란드, 독일이 만들어낸 맑시스트들만큼 창의적이거나 영감을 주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의 오래된 저작들을 읽어보면, 여전히 거기서 오늘날 미국의 모습을 조명하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사회주의 사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역사에서 무로 시작하지 않고, 세계가 신좌파와 함께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반세기 전 반란에 참여한 이들 중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겐 연결지을 혁명적 전통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에 맞서는 모든 반동 또한 이와 연결되어있습니다.

반세기 전의 여러분의 전임자들은 완전히 역동적인 자본주의의 확장 속에서 사회와 싸워야했지만,

여러분은 제국주의로만 확장될 수 있는 타락한 자본주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사회의 또 다른 역설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많이 확장할수록 문화적으론 더 축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도구적이고 탐욕스런 부르주아지의 자만심과 자기 만족에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빈곤 또한 참지 못하며 역겨워합니다.

그러나 '참여 민주주의'라는 목표, 또는 '개인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표에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는 모호하고 의미없는 슬로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사회 관리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 정의로 볼 때, 참여에서 여러분을 배제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선포 할 때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이 반란 중에 있는 사회,

참여에서 제외되는 바로 그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